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사업 표류

'남도피아' 사업과 연계 놓고 광주시 부서간 이견
설계용역 중단 등 차질…애꿎은 상인들만 피해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지구 상가이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 이주지 개발계획에 대한 광주시 부서 간 이견으로 이전 사업 용역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원효사 지구 상가를 광주호 인근 무등산 자락인 북구 충효동 일대로 옮기는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17만㎡의 터에 398억원을 들여 2020년 말까지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 이전과 함께 무등산 생태와 관련한 전시·홍보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주거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각종 이벤트와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도 조성한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녹지와 쉼터 등 편익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 기관으로 지난해 4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마쳤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 용역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가칭 '남도피아' 사업과 연계되면서 개발 방식 등을 두고 부서 간 이견 때문에 지난 3월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남도피아 사업은 광주호 주변의 특정 경관계획으로 역사와 자연환경을 살린 한옥마을, 인접한 생태 탐방 체험관 등과 연계한 생태 체험시설, 호수생태원 수상 공연장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효사 상가이전 사업을 담당한 공원녹지과는 상가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남도피아 사업 담당인 도시계획과는 상가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무등산 난개발과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견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효사 지구에 영업허가권을 가진 상가가 53개에 달해 영업 환경을 위해서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주지가 광주호와 평모들 사이 소쇄원의 맞은편에 있어 자연자원과 가사문화권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상가이전 사업이 난항을 보이면서 개보수를 못 해 손님이 떨어지는 등 원효사 상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지인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무등산 경관 훼손과 상충해 조율하는 중이다"며 "경관도 고려하고 관광 자원화도 할 방안을 찾은 뒤 9~10월께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학중 학교 석면 철거 작업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어룡초등학교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정텍스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교실 내부에 비닐을 씌우는 보양작업을 하는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룡초와 동신여중 2곳에 대해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까지 무석면 텍스로 천정을 교체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침몰 원인 내인설·외력설 모두 채택

선체조사위 활동 종료
원형 보존·생명기억관 설립

1년 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내인설'과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두 가지로 결론 내렸다.

선조위는 6일 서울 중구 세월호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등 3명은 내인설, 권영빈 제1소위원장,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등 3명은 열린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인설은 세월호의 침몰이 급격한 우회전,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세월호는 선체 정밀조사가 끝난 후 파손 원형을 보존한다. 또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법(가칭)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추모·치유·기억·기록한 '세월호생명기억관'을 설립하고 국립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17년 7월 출범한 선조위는 이날로 1년 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 규명 작업은 지난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에서 넘겨받아 계속하게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경찰 일선 형사·수사과장
수사경력 규정 '자격제' 도입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경찰이 수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본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경정급을 대상으로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서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정급 수사경찰은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다.

앞으로는 이들 보직에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범죄 종류별(수사 또는 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배치한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해 온 '팀장 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팀장 자격제는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2년 이상으로 수사팀장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경찰은 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를 팀장 자격요건으로 두는 등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수사관 자격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수사기법,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등 4대 분야 88개로 구성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심화·팀장 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을 반영해 자체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46	달뜸	01:12
해짐	19:30	달짐	15:29

입추(立秋)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가끔 흐리고 비	27/36	보 성	가끔 흐리고 비	25/34
목 포	구름 많음	27/34	순 천	가끔 흐리고 비	27/34
여 수	구름 많음	27/32	영 광	구름 많음	26/35
나 주	가끔 흐리고 비	26/36	진 도	구름 많음	26/34
완 도	구름 많음	26/34	전 주	구름 많음	27/35
구 례	가끔 흐리고 비	25/34	군 산	구름 많음	26/33
강 진	구름 많음	26/34	남 원	가끔 흐리고 비	26/34
해 남	구름 많음	26/34	흑산도	맑음	26/32
장 성	가끔 흐리고 비	25/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먼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59	09:31
	15:20	22:41
여수	11:02	04:44
	--:--	17:53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26/36	26/36	26/35	26/35	25/35	25/35	25/35

고혈압 치료제 59개 품목 추가 판매금지

발암 가능 물질 검출…복용 환자 18만명 재처방 받아야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중국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됐다.

이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는 22개사 5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은 잠정 판매 중단된다. 이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8만명은 처방 또는 조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사인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시켰다"고 6일 밝혔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 룬두사에서 원료를 수입·정제해 '발사르탄'을 제조해 왔다.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발사르탄의 비중은 3.5%정도 된다.

이 중 일부 발사르탄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NDMA 기준치를 초과한 대봉엘에스의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22개사, 59개 품목이다.

해당 완제품명은 노바스크브이정, 노디큐포스정, 로우포지정, 바로포지정, 발사디핀정, 발사렉스정, 발사로딘정, 발사포스정, 발탄엑스정, 아나퍼지정, 암로살탄정, 암로탄정, 암발산정, 에스살탄정, 엑스닌정, 엑스콤비정, 엑스페라정, 엑스포르테정, 오노포지정, 위넥스지정, 코르포지정, 휴니즈발사르핀정 등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총 18만1286명이다.

문제가 된 59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에 가더라도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다. 재처방과 재조제에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환자는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상담과 재처방을 받으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